

장흥 하늘빛수목원, 봄맞이 싱그러운 툐립 축제 개최



다음달 5일부터 25일까지... 약 10만m² 정원
300여 종 수목·1000여 종 야생화 및 초화류
전남 제8호·전국 22번째 민간정원으로 지정

장흥군 하늘빛수목원(대표 주재 용)은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제7회 툐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장흥군 용산면에 위치한 하늘빛수목원은 약 10만m² 규모의 정원에 편

백꽃, 생태연못, 글램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늘빛수목원 내에는 300여 종의 수목과 1000여 종의 야생화 및 초화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수변생태 학습, 승마체험, 어린이 꽃나무 심기 체험 등 갖가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하늘빛수목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정원으로 지정됐다.

수목원 곳곳에 조성돼 있는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툐립이 만개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툴립뿐만 아니라 1천여 종의 꽃나무와 야생화가 수목원 곳곳을 수놓으며 화사한 봄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봄빛이 선명한 수목원 뒤편으로는 편백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편백숲 한쪽으로는 글램핑장이 들어서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주제용 대표는 "툴립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눈부신 봄기운을 뿜고 있다"며 "하늘빛수목원에서 봄날의 하루를 느껴 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 해조류, 비대면 홍보로 소비 효과 톡톡

TV·유튜브·온라인 등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 힘써

완도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어업인들을 위해 TV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은 그동안 주로 직거래 장터나 대형 유통매장 등 대면 행사를 통해 소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 트렌드로 변화됨에 따라 군은 수산물 소비 촉진 전략을 비대면 마케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등 TV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가 끊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편스토랑은 농수산물을 재료로 하여 4인의 출연자들이 요리 대결을 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우승 상품을 결정한 후 전국 CU편의점에 제품이 출시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최종 우승 메뉴가 방송되는 다음 날

은 편의점에 출시된 상품이 매번 품절되는 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3월 12일부터 3주간은 다시마와 미역, 매생이, 둛 등 해조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요리가 개발됐다.

26일 방송에서는 완도산 해조류를 이용한 김재원의 '완도 국수' 레시피가 공개됐고, 최종 우승은 이유리의 '매생이 크림 떡볶이'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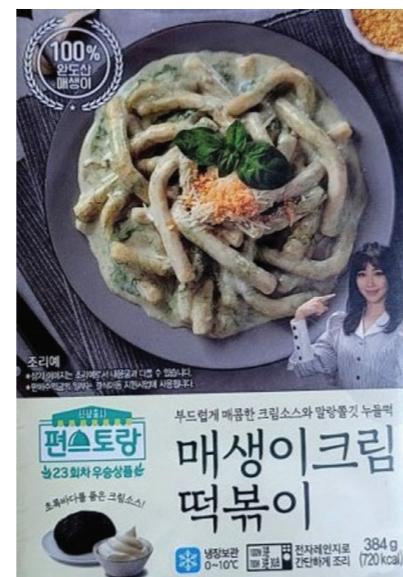
우승 제품은 완도산 매생이를 사용해 CU편의점과 헬로네이처에서 밀키트로 출시되어 매생이 생산 어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완도를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 생산되는 해조류 1번지로 소개하며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완도산 해조류, 완도 전복 등 특산물과 완도타워, 장보고 동상, 활어회 센터 등 관광지도 함께 소개해 홍보 효과를 두루두루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4~5월에는 봄철 흥수 출하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복 생산 어가를 위해 TV 방송과 유튜브, 완도군 이슈 할인 쿠폰 제공 행사 등을 전개하여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쌀귀리고추장 홈쇼핑서 완판...1억8천여만 원 매출

엄선된 국내산 원료 바탕 고추장 1800세트 판매... 다음달 4일 추가 방송



강진 쌀귀리를 주원료로 만든 고추장이 홈쇼핑에서 완판됐다.

30일 전남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된 장영농조합법인은 최근 공영 홈쇼핑에서 소비자가 직접 담가 먹는 '고추장 만들기 세트'를 선보였다.

쌀귀리가루, 고춧가루, 조청, 메주가루 등 엄선된 국내산 원료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고추장 만들기 세트'를 런칭한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1시간 만에 예상 판매량인 1200세트를 훌쩍 뛰어넘은 1800세트가 판매됐다.

오는 4월 4일 홈쇼핑 재방송을 통해 500세트(4000만 원 상당)를 추가 판매할 예정이어서 총 매출액은 1억 80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장 세트는 기존의 완제품과는 달리 찹쌀 발효물을 놓고 조청을 섞는 등 소비자가 직접 고추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담그는 재미와 함께 안심



하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주산지인 강진 쌀귀리를 사용해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달콤하고 고소한 고추장 맛을 느낄 수 있다.

강진군은 쌀귀리 고추장 외에도 지난해부터 쌀귀리 국수, 선식, 떡·빵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 쌀귀리를 활용

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승우 강진군수는 "쌀귀리 주산지인 강진군에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제적으로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쌀귀리를 특화작물로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관광홍보 UCC 공모전 개최

2-3분 내외 영상물...오는 10월 25일까지 접수

진도군이 주요 관광지와 아름다운 자연경관·문화예술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재로 관광홍보 영상콘텐츠를 제작·활용하기 위한 2021 진도 관광홍보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3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접수는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

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별로 제작한 2분~3분 내외의 영상물을 신청서류와 함께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총 9건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인(팀) 300만원, 우수상 2인(팀) 각 100만원, 장려상 6인(팀)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해남군은 지난 29일 군청 다목적실에서 윤재갑 국회의원을 초청, 2021년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종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성일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조광영 도의원, 김병덕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해남군 주요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해남군은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등 국·공립 기관 유치를 비롯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

지 조성, 김치수출단지 조성, 어란진

항 국가어항 확장, 화원조선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RE100전용 시범사업단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재정 분권 개선, 경로당 운영비 국가지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등 정책 건의도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예산지침 건의 23건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2021년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

